

##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2. 광야 시대

D.P.Joshep 2010-06-07 22:51:03

조회 82 스크랩 0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간극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억압과 폭정에 힘들어 합니다. 이 시기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 '모세 5경'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처럼 두 파트로 구별됩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역사 스토리인 부분이고, 그 이후 40장까지는 우리에게 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대가족이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도 없이 25년이 지나면 사람의 수가 두 배 늘어난다는 '멜더스'의 학설에 따르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역과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노예 공동체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방법, 공동체 생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누림을 가르쳐주셔야 했는데, 이 가르침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에 대한 되풀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일장 연설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고 회고함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병력이 되는 인원인 남자 20살에서 50살까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1차 인구조사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모세 5경의 경우는 이동경로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가를 유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탄압이 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모세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살아나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시기에 모세를 사육하신다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양치기로서 40년간 단련시키십니다.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자신의 나약함을 토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열 받음을 보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 아론을 동행하여 이집트의 왕 파라오(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이집트가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는 나일강의 신에 대한 징벌, 개구리는 부활과 다산의 신인 '헥트'에 대한 징벌, 이는 땅의 신 '셰'에 대한 징벌,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에 대한 징벌, 5번째 짐승의 병인 악질은 소의 신 '아피스'와 '하도르'에 대한 징벌, 독종은 의술의 신 '타이폰'에 대한 징벌, 우박과 불이 내린 것은 하늘의 신 '누트'에 대한 징벌,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 '세라피아'에 대한 징벌, 흑암에 대한 재앙은 태양의 신 '라'에 대한 징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유래가 된 장자의 죽음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에 대한 징벌입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을 첫 번째부터 보면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은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하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술사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 이집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재앙들의 강도는 켜집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인간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으나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에게 크게 해가 되는 재앙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있을 때, 첫 번째의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의 관습은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서서 먹는 데, 서서 먹는 것은 출이집트를 의미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후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변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온다. 이때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만 모세는 굳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이란 전능하심 능력을 보여주십니